



WBC 4강행 이용규가 일낸다

빠른 발·센스있는 타격 히든카드 부상 김인식 감독 “2라운드 주전 활약 기대”

‘빛고를 바라달이’ 이용규(24·KIA)가 제 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라운드에서 주전 외야수로 중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베이징올림픽에서 불발이 아쉬웠던 이용규는 WBC 아시아라운드에서 외야 자원이 넘쳐 벤치로 밀려났지만 빠른 발을 앞세워 2라운드에서는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전후 중인 대표팀의 이순철 타격 코치는 12일(이하 한국시간) “본선에서 대결하게 될 쿠바나 멕시코, 호주 선수들은 체구가 커 이들을 제압하려면 기동력을 살릴 필요가 있다. 타순까지는 알 수 없으나 김인식 감독님께 어떤 식으로든 용규를 기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유일한 메이저리거인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2라운

드에서도 지명타자라면 나섭에 따라 이용규는 이진영(LG)과 주전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점쳐진다. 김 감독은 애초 추신수에게 우익수를 맡길 예정이었으나 클리블랜드 구단이 지명 타자 위주로 써달라고 요구하면서 예선에서는 수비가 좋고 장타력이 있는 이진영을 우익수로 기용했다. 이진영은 힘있는 6번 타자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6일 대만과 첫 경기에서 승부를 결정지은 만루포가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작년 올림피아드에서 타율 0.481(27타수13안타)을 때리고 고감독 손맛을 자랑했던 이용규는 투수를 괴롭힐 줄 알고 도루능력도 있어 그를 기용하면 타선 전체적으로 출루율도 높이고 기동력도 살릴 수 있다. 투수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WBC에서 명암은 1, 2점 싸움에서 갈린다는 점에 비춰볼 때 꼭 필요한 1점을 뽑기 위한 히든카드로 이용규가 부상한 셈이다. /연합뉴스

한국 상대, 쿠바나 멕시코나 오늘 판가름

베네수엘라 등 8강 확정...15일부터 열전 돌입 한국, 컨디션 ‘뚝’...샌디에이고 연습경기 완패



12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 스포츠컴플렉스에서 열린 WBC 대표팀과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연습경기 3회말 2사 주자, 2루 상황에서 대표팀 선발투수 김광현이 샌디에이고 헤들리에게 2점 적시타를 맞고 허탈해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이 확정됐다. 예선전과 같이 패자부활전의 일종인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치러지는 본선에서 진출한 8개팀의 전력을 살펴본다. <A조> ▲한국(1위) = 예선전에서 일본에 2-14로 패했지만 1.2위 결정전에서 일본 강타선을 1-0으로 틀어막으며 투수력을 과시했다. 본선 진출팀 중 평균자책점(방어율)이 3.66으로 5위다. 타격은 0.259로 전체 6위에 올라있다. 예선전에서 홈런 1개 등 5안타로 타율이 0.417인 김태균과 국내 리그 타격왕으로 타율 0.385를 기록 중인 김현수가 중심 타선을 이루고 있다. ▲일본(2위) = 일본 야구 사상 최고의 드림팀으로 평가받는다. 스즈키 이치로(시애틀), 이와무리 아키노리(텍사스) 등 메이저리거가 5명이나 포함됐다. 투수진은 최정상급. 팀 방어율이 1.08로 푸에르토리코(0.33)에 이어 2위다. <B조> ▲쿠바(순위 미정) = 자타가 인정하는 아마야구 세계 최강이다. 첫 WBC대회 준우승과 베이징올림픽 야구 은메달이 아쉽다고 할 정도다. ▲멕시코(순위 미정) = ‘도깨비 팀’이다.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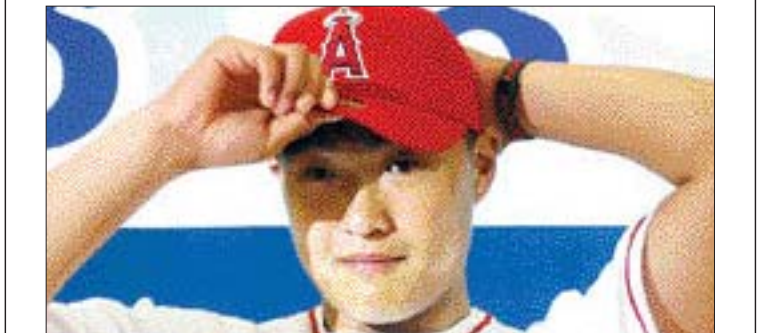
수 전원이 전·현직 메이저리거로 구성된 막강 전력이지만 첫 경기에서 메이저리거가 4명뿐인 ‘약체’ 호주에 7-17로 8회 콜드게임패를 당했다. 그러나 패자부활 2회전에서는 호주에 홈런 3개 등 13안타를 집중시켜 콜드게임승을 거뒀다. <C조> ▲베네수엘라(1위) = 역시 주전 대부분이 메이저리거로 구성된 중남미의 강호다.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홈런 37개를 때린 거포 미겔 카브레라와 홈런 20개를 때린 바비 아브루(뉴욕 양키스)가 공격의 핵이다. ▲미국(2위) = 야구 종가를 자랑하면서도 제 1회 WBC 대회 4강 진입 실패라는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미국은 이번 대회 선수 전원을 메이저리거로 채워 대회 우승을 노리고 있다. 지난 시즌, 홈런 29개, 타점 115개 등의 맹활약을 펼친 케빈 유길리스(보스턴)와 타율 0.364, 홈런 22개의 괴력을 뽐낸 치퍼 존스(애들랜트) 등 강타자들이 즐비하다. <D조> ▲푸에르토리코(1위) = 12일 현재까지 예선전 3경기에서 유일한 전승 팀인 푸에르토리코는 안정된 마운드와 메이저리거 강타자들의 화력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네덜란드(2위) =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의

WBC 경기일정

결승 LA 다저스 스타디움			
3월24일 오전 10:30			
준결승 LA 다저스 스타디움			
3월23일 10:00	1조 2위·2조 1위		
3월23일 08:00	2조 2위·1조 1위		
1조 샌디에이고 팻코 필름			
3월16일 05:00	일본 1조 1위		
3월16일 12:00	한국 2위		
3월17일 12:00	1경기 패자·2경기 패자		
3월18일 12:00	1경기 승자·2경기 승자		
3월19일 12:00	4경기 패자·3경기 승자		
3월20일 10:00	5경기 승자·4경기 승자		
2조 아이아이 올린 스타디움			
3월15일 02:00	베네수엘라 세인트 피터스버그		
3월15일 06:00	미국 푸에르토리코		
3월16일 08:30	1경기 패자·2경기 패자		
3월17일 08:30	1경기 승자·2경기 승자		
3월18일 08:30	4경기 패자·3경기 승자		
3월18일 08:30	5경기 승자·4경기 승자		
8강 연습전 일괄			
A조 1위: 한국	B조 1위: 쿠바	C조 1위: 푸에르토리코	D조 1위: 베네수엘라
A조 2위: 일본	B조 2위: 미국	C조 2위: 미국	D조 2위: 네덜란드

주인공 ‘야구 변방’인 유럽 국가지만 우승후보 도미니카공화국을 두 번이나 격파하면서 운에 따른 승리가 아님을 보여줬다. 투수력이 최대 강점이다. 팀 방어율 부분에서 2.50으로 본선 진출팀 중 4위에 올라있다.

한편 한국은 12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 스포츠컴플렉스에서 메이저리그 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연습경기를 가졌으나 투수들이 졸졸이 무너지면서 장단 14안타를 허용해 4-10으로 패했다. /연합뉴스



진흥고 출신 LA 에인절스 정영일 “고국 무대에서 뛰고 싶다”

미국프로야구 LA 에인절스 오브 애너하임에서 활약 중인 유망 투수 정영일(21)이 한국에서 뛰고 싶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냈다. 미국 애리조나주 템퍼의 소속팀 스프링캠프에서 훈련 중인 정영일은 12일(한국시간) 인근 피오리아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야구대표팀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평가전을 보러 구장을 찾았다. 짧은 스포츠형 머리에 빨간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타난 정영일은 관중석에서 김광현(SK), 윤석민(KIA), 봉중근(LG) 등 친분이 있는 대표팀 선수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광주진흥고 재학 시절 김광현, 임태훈(두산)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정영일은 연고 프로구단인 KIA의 제안을 뿌리치고 2006년 에인절스와 계약금 100만달러를 약간 넘는 금액에 사인했다. 2007년 투키리그 3경기에서 1패, 평균자책점 9.00을 남긴 정영일은 팔꿈치 통증으로 고생하다 결국 지난해 팔꿈치 인대 이식 수술을 받았고 올해 6월 재기를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는 중이다.



KIA 서재응이 12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히어로즈와의 연습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 투구를 하고 있다. 팀은 4-7로 패했다.

‘거포’ 이재주 발야구 진수 보였다

“거포 이재주도 땀이다.” KIA 타이거즈가 12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히어로즈와의 연습경기에서 마운드 난조로 4-7로 역전패 당했다. 선발로 나온 서재응은 4이닝동안 5피안타 2사사구 3실점했으나 팀이 4-3으로 앞선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와 패전투수는 면했다. 이재주는 3회 ‘발’로 1점을 만들며 눈길을 끌었다. 초반 분위기는 KIA가 주도했다. 발 빠른 전준호와 정수성을 범타로 처리한 서재응이 3번 클락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간단히 1회를 막았다. 팀 타선은 활발한 공격으로 서재응의 어깨를 가볍게 해 주었다. 1회말 최정환의 2루타에 이

KIA - 히어로즈 두번째 연습경기
마운드 난조·타선 불발에 4-7 패
어 폭투와 볼넷으로 만든 1사 2·3루, 최정환과 이재주가 나란히 좌전안타를 터트리며 2-0이 됐다. 2회말에는 이현근의 2루타로 3-0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3회초 선두타자 김일경에게 안타를 맞은 뒤 서재응이 흔들렸다. 1사 1루 정수성의 3루타와 클락의 땅볼로 3-2. 4회에도 볼넷과 2루타로 추가 실점을 한 서재응은 4-3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하지만 중간계투 광정철과 김영수의 제구가 흔들리며 경기는 4-7 KIA의 역전패로 끝났다.

마운드 고전과 타선의 불발 속에서도 이재주의 파이팅은 돋보였다. 3회말 2사에서 풀카운트 점진 끝에 볼넷으로 출루한 이재주가 상대 배터리가 방심한 사이 2루로 질주해 도루에 성공했다.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이재주가 뛰자 KIA 덕아웃에서는 홈런이라도 터진 듯 환호성이 터졌다. 허를 찔린 히어로즈는 곧바로 채중범에게 2루타를 맞으며 1점을 내줬고, ‘발야구’로 점수를 만든 이재주는 서재응을 비롯한 동료들의 열렬한 환영속에 덕아웃에 입성했다. 조병현 감독이 주둔한 적극적인 야구, 고감한 플레이가 KIA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일본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스에서 활약 중인 외야수 이병규(35)가 시범경기에서 만루 홈런을 쏘아 올렸다. 이병규는 12일 일본 기후구장에서 열린 히로시마 도요카프와의 시범경기에서 우익수 겸 5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3회 만루 홈런을 포함해 4타수 2안타 4타점의 맹타를 휘둘렀다. 이병규는 팀이 3-2로 앞선 3회 말 1사 만루 기회에서 히로시마 투수 마에다 겐타를 상대로 만루홈런을 터뜨렸다. 이병규는 7회에도 중견안타로 출루하면서 이날 4타수 2안타 4타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주니치는 6회와 8회에 각 3점, 9회에 5점을 내주면서 히로시마에 10-15로 역전패했다. /연합뉴스